

“탱고의 깊이, 누아르 감성으로 물들다”

전주 문화공간 이룸서 18일 고상지 밴드 ‘TANGO NOIR’ 공연

전주의 대표 공연예술 공간 문화공간 이룸(이사장 이윤정)이 오는 18일 오후 5시, 2025 비르투오조 시리즈 다섯 번째 무대로 고상지 밴드의 ‘TANGO NOIR’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 창작주제 지원사업에 선정된 ‘너머의 예술·이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반도네오니스트 고상지의 음악 세계를 통해 탱고의 본질과 현대적 감성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자리다.

공연에서는 아르헨티나 탱고의 거장 아스토르 피아졸라(Astor Piazzolla)의 대표작 ‘Tango Apasionado’, ‘Oblivion’, ‘Libertango’를 비롯해, 고상지의 자작곡 ‘마지막 만담’, ‘ys ii’, 그리고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의 OST, 라틴 명곡 ‘엘 푸에블로 우니다(El Pueblo Unido)’ 등이 연주된다. 탱고가 단순한 춤의 반주가 아닌, 인간의 서사와 감정을 담아내는 예술임을 보여주는 무대다.

이번 무대에는 반도네온의 목직 한 울림으로 깊은 감성을 전하는 고상지와, 라틴·재즈·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피아니스트 최문석이 함께한다.



고상지 밴드 ‘TANGO NOIR’ 포스터

최문석은 김동률, 이적 등 유명 가수들과의

협업뿐 아니라 포레스텔라 조민규 콘서트 밴드마스터로 활약하며 폭넓은 음악적 감각을 인정받은 연주자다. 두 사람의 호흡은 탱고 특유의 열정과 리듬감을 한층 생동감 있게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상지는 아르헨티나 Orquesta Escuela de Tango Emilio Balcare를 졸업하고, 세계적인 거장 Walter Castro, Ryota Komatsu 등에게 사사받은 국내 대표 반도네오니스트다. 2021년 대한민국 대중문화 예술상을 수상한 바 있다. TV 예술무대, 열린음악회 등 방송 출연과 서울재즈페스티벌, 평창 대관령음악제 등 주요 무대에서 활약했다. 최근에는 미국 CBS 드라마 ‘George & Mandy’s First Marriage’의 OST 작업에 참여하며 세계 무대로 활동을 넓히고 있다. 문화공간 이룸 이사장은 “이번 ‘TANGO NOIR’는 전주에서는 보기 드문 탱고 중심의 크로스오버 공연으로, 도시적 감성과 라틴의 열정이 결합된 무대가 될 것”이라며 “서울 수준의 공연을 지역에서도 만날 수 있도록 기획한 비르투오조 시리즈의 의미를 이어가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관람을 기대했다.

예매는 네이버에서 ‘비르투오조 시리즈’를 검색하거나, 전화(063-223-5323)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민호 기자

함께 만드는 진짜 지역 축제 열린다

‘제3회 전주예술난장’ 17~19일 개최

전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5 전주예술난장’이 오는 17~19일 3일간 팔복예술공장 일대에서 열린다.

전주페스타 및 미래문화축제와 연계해 치러지는 이번 행사는 지난 2023년 이후 매년 국내의 예술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공연과 프로젝

트를 선보여왔다. 지난해에는 공식 공모에 170여 팀이 지원하는 등 전국적 관심을 끌었으며, 올해는 200여 팀 중 35개 팀이 최종 선발됐다.

17일 합동 개막식에서는 ‘뛰어! 전주, 울려! 난장’이라는 주제로 전통과 미래가 결합된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이어 18~19일 양일간 서커스, 마임, 마술, 음악, 전통연희, 춤, 극, 미디어아트, 공공미술 등 다양한 장르의 거리예술

이 시민과 함께 어우러져 도시를 거대한 축제의 장으로 바꿀 예정이다.

한편 제3회 전주예술난장은 예술인 기획단 ‘장단’과 전주문화재단이 함께 민·관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국 예술인뿐 아니라 ESG 협의회, 주민 협의회, 팔복동 기업체가 참여해 ‘함께 만드는 진짜 지역 축제’를 지향하고 있다.

하형래 예술인기획단 단장은 “모두가 만드는 축제를 통해, 모두가 모인 공공의 장에서 모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제14회 남원 국제도예캠프’ 17~19일 개최

남원시와 (사)남원국제도자예술연구센터(대표 김광길)가 오는 17일부터 19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일원에서 제14회 남원 국제도예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정유재란 시기 일본으로 끌려가 사쓰마 도자기를 꽃피운 남원 도공의 예술혼을 재조명하고, 남원 도자문화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국제도예작가 기획초대전, 초청작가 워크숍 및 강의, 전통도예 시연, 국제도자문화세미나와 더불어 시민 참여형 작품 소성 체험, 물레경진대회, 특산품 홍보·판매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전통과 현대,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축제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캠프를 통한 국내외 도예인들의 교류는 남원 도자문화의 역사와 전통을 새롭게 조명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새로운 기법과 기술의 공유는 지역 도예 산업 발전과 창작 역량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센터 김광길 대표는 “남원 국제도예캠프는 도공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세계 도예인들과 교류하는 뜻깊은 행사”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도예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였으



면 한다”라고 전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국제도예캠프는 남원의 우수한 도자문화를 세계와 공유하고 도자산업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라며, “남원의 가을 대표 축제들과 함께 문화의 향연을 즐기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1부 ‘강패와 장구’ (31)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 오상근 -

동식은 하나로마트에 들러 선물용 복분자주와 팩으로 포장된 양념장어구이를 산 뒤 아우디를 몰아 중도인이 알려준 월림 봉림 마을로 달려갔다.

들녘은 가을걷이가 한창이었는데 요즘은 대부분 콤바인으로 모든 작업이 이뤄지는 터라 사람은 별로 없고 기계 돌아가는 소리만 요란했는데 시절이 변해도 참새는 여전히 콤바인 지나간 자리에 우르르 몰려 날아와 앉아서 바쁘게 서로를 격려하며 배를 채우고 있었다.

봉림마을을 회관을 찾았으나 사람이 없어 평상에 앉아 있다가 지나가는 남자에게 강정근의 집을 물었다. 강정근의 집은 회관에서 좁은 소로를 따라 더 안으로 들어가면 하늘색 지붕에 파란 대문 집이라고 했다.

동식은 차를 회관 앞에 세워두고 어두운 길을 걸어 강정근의 집을 찾았다. 대문은 열려 있었고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다.

“어서 오쇼이.”

막 샤워를 하고 나오는 참인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현관문을 열고 나온 강정근이 동식을 맞이했다. 동식은 들고 온 복분자주와 장어구이를 현관 바닥에 내려놓고 인사를 했다.

“뭘 이런 것을 다 사 왔으니까. 그냥 와도 되는데. 내 그렇지 않아도 그때 얘기를 다 못하고 헤어져서 좀 섭섭했는디 이렇게 찾아오니 잘 되었소. 저녁 안 먹었지라?”

집에는 강정근과 그의 부인이 있었는데, 강정근이 미리 말을 해놓았는지 부인은 동식의 식사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

“평소 우리들 먹는 건디, 편찮을랑가 모르겠소.”

목은지 고등어조림, 두부조림, 가지무침, 오이무침, 시금치, 상추 겹절이 등 가정식 백반집에 온 것처럼 식탁에 풍성한 시골인심이 가득했다. 출소한 후로 처음 받아보는 가정집 밥상이었다.

살아오면서 가정집 밥을 먹어본 적은 없

었지만 이런 밥상 앞에 앉으면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부르고 부자가 된 기분을 느꼈었다. 동식은 잠시 식탁을 바라봤다.

“예, 찬이 없소? 먹을 게 없지?”

식탁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동식에게 강정근이 정이 실린 음식으로 물었다. 동식은 얼른 손을 내저으며 아니라고 말을 했다. 이런 밥상을 준비해준 강정근과 그의 부인에게 무슨 말로 마음을 전해야 하는지 단어들어 생각나지 않았다.

동식이 가져온 복분자주와 양념 장어구이도 같이 식탁에 올렸는데, 그나마 고마운 마음이 전해진 듯 하여 동식은 젓가락을 들 수 있었다.

“그날 처음 봤는디 남준이하고 너무 똑같이서 정말 놀랐당께, 허허허, 남준이가 돌아온 중 알았당께.”

강정근이 동식이 따라준 복분자주를 받으며 가볍게 맞했다.

“가허고 나허고 동창이였는디, 여고 같은 마을에 살았었지. 글고 먼 친척이었고.”

“그분도 혹시 장구나 그런 악기를 잘 치셨어요?”

호암마을의 강투이자 수녀는 강 씨를 가진 사람이 농악을 잘 했다고 했다. 그는 무장면이 고향이라고 했다.

“그럼, 아주 잘 쳤지. 장구도 잘 쳤지. 그 친구가 잘 하는 건 피리였어. 아메 가가 제대로 했으면 새납을 아주 잘 불었을 거여.”

복분자주를 반주 삼아 동식은 모처럼 흡족한 기분으로 저녁밥을 맛있게 먹었다. 밥은 다 먹었지만 복분자주가 남았고, 좋은 안주인 양념 장어구이가 준비되어 있는 터라 식탁에서 바로 일어날 수 없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가 무당집 아들이었어. 그래서 설움도 많았지.”

받은 잔을 천천히 비운 강정근은 잠시 허공으로 눈을 돌린 뒤 잔을 동식에게 건네 복분자주를 따라주며 강남준에게 관한 긴 이야기를 시작했다.

출판진흥원, 9월 화제의 책 200선 발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통해 9월 ‘화제의 책 200선’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순위는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영풍문고 등 전국 356개 서점의 판매 데이터를 집계해 선정됐다.

9월 판매 1위 도서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의 신간 ‘호의에 대하여’였으며, ‘벧템이론’과

‘흔한남매 20’이 뒤를 이었다. 또한 성해나 작가의 소설집 ‘흔모노’, ‘트렌드 코리아 2026’, 구병모 작가의 ‘절창’ 등이 상위권에 포함됐다. ‘다크 심리학’과 ‘자몽살구클럽’ 역시 10위권을 유지하며 꾸준한 인기를 보여주었다.

9월 전체 도서 매출액은 1,501억 원으로 전월 대비 약 1.7%, 전년 동월 대비 약 7.1% 증가했다. /오상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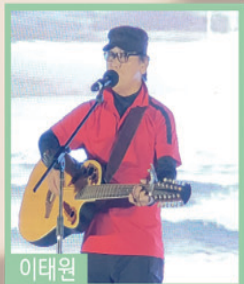
제33회 남원 홍부제

가을밤을 물들이는 음악축제

출연진



사회: 국민MC 서정우



이태원



최형준



박영일



이진관

주최 : (사)전북문화진흥원

주관 : (사)전북문화진흥원

후원 : 남원시, 홍부제전위원회

10월 19일(일) 오후 6시20분 ~ 7시

남원 사랑의 광장 무대(남원시 어연동 37-19)